

금타 채권단 박삼구 회장 요구 수용검토

<금호타이어>

계약서에 상표권 사용료 0.5% 반영 놓고 더블스타와 협의 0.3% 차액은 채권단이 보전...내주 주주협의회 열어 결정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 나그림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23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료 상환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하고서 다음 주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박삼구 회장의 수정 제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용

하겠다고 하면서도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서를 달았다.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채권단의 기존 제안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 보전해주는 내용이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5+15년,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절충안이었다. 대신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상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이라는 선결 조건은 변함이 없었다. 채권단이 금호

타이어 매각을 위해 선의로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박 회장 측이 재차 요구한 것은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결국 선결 조건을 바꾸라는 뜻이다. 선결 조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 없이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박 회장의 요구가 사실상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는 채권단의 해석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채권단은 하지만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단, 채권단이 여전히 차액을 보전해줘 더블스타는 기존 선결 조건만큼의 부담만 지면 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은 ‘채권단 지원’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수도 있다.

더블스타에게서 매각 대금 9550억원을 다 받고서 이후에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채권단은 보고 있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가격이 바뀌면 박삼구 회장에게 또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 큰 손해를 본 것이니 넓게 보면 가격조정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한편 박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금호아시아나 가족음악회’에 참석해 그룹 임직원을 격려한 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금호그룹측은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가계는 늘어나는 대출에 허리 휘는데 시중은행 이자늘리로 역대 최대 실적

성과급 잔치 놓고 눈치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경기회전과 시중금리 상승 속에 가계대출에 의한 이자수의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를 자축하는 성과급 잔치를 펼칠지 주목된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는 가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로 시장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5조 8786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1조8891억원, KB금융은 1조86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각각 2001년과 2008년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도 각각 1조 983억원과 1조310억원 등 1조원이 넘

는 순이익을 벌어들여 각각 2011년과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이들 금융지주·은행이 이같이 기록적인 실적을 낸 배경에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이 개선된 덕이 크다. 이같은 순이자마진 개선의 정도는 은행의 여신증가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대출 기준)는 지난 5월 현재 연 3.47%로 집계돼 기업대출 금리 연 3.45%보다 0.02%포인트(p) 높았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아진 것은 2010년 3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느라 가계가 등이 휘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실적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광주·전남 복날 삼계탕 나눔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지역사랑봉사단은 중복을 맞아 지난 21일과 22일, 오는 27일에 광주 사랑의식당, 동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 이랜드노인복지관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복날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광주은행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인 삼계탕과 여름과일로 풍성한 점심을 차려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으며, 배식, 설거지 그리고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이동수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철에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으로 나눔 행사를 가지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r



광주·전남중기청 3D 프린팅 인력양성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찬형)은 24일부터 두 달간 지역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스마트 가전·전자자동차 등에 접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돕는다.

3D프린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고 있지만 수도권 외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이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엔 92명이 참여해 수료율 93%(86명), 취업률 76%(65명)를 달성했다. 올해는 130여명이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 과정도 신설했다.

참여자들은 24일부터 일방과정 130시간, 전문가 과정 320시간 동안 3D모델링·프린팅·시제품 제작 등 교육을 받게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전방 임동·평동공장 통합하나

섬유업 불황·최저임금 인상 영향 전국 공장 6곳 중 3곳 폐쇄 계획

각종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전방주식회사(옛 전남방직)가 섬유업계 불황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공장 6곳 중 3곳의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비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방은 전국에 보유한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비슷한 6~7%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높은 16.4%로 발표됨에 따라 구조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방은 현재 광주 임동공장과 평동공장, 전남 영암공장, 익산공장, 천안공장, 시흥공장 등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1200여명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임동공장 100여명과 평동공장 120여명, 영암공장에 170여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폐쇄를 검토 중인 공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간 수익성이 악화한 광주 임동공장과 평동공장으로 통합·폐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 공장 한 관계자는 “전국 공장 6곳 중 임동공장의 수익성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며 “본사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방의 이번 결정이 현실화되면 월평균 약 235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받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섬유업체 특성상 전체 직원의 80%가 여성이고 이 중 90% 가량이 재취업이 어려운 중년의 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장 폐쇄에 따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한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조정일뿐이라는 시각도 제기돼 논란이다. 전방의 매출은 2012년 2952

억원, 2013년 2938억원, 2014년 2452억원, 2015년 2373억원, 2016년 2008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한편 전방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가네보방직으로 세워진 뒤 광복 이후 1953년 기존 가네보방직을 자본금 84억원으로 승계하는 형태로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다. 설립 당시 사명은 전남방직이며, 1970년 현재의 상호로 사명을 바꿨다.

전방의 설립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부친인 고(故) 김용주 회장이다. 김 의원의 친형인 김장성 명예회장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산업체 맞춤형 FTA 인력양성 과정' 개설

광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제5기 산업체 맞춤형 FTA 인력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무역실무 기초, FTA 실무, 취업 소양교육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수강할 수 있는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대표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와 청년 미취업자 등이며 과정은 ▲무역실무 기초 ▲관세 행정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교통비와 중식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홈페이지(www.gicci.or.kr) 또는 광주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포털사이트(www.fta.go.kr/regions/gwangju)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g-pta@daum.net)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문의 062-350-5864~6.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6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22	24	31	34	36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59,975,465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5,226,623	44
3	5개 숫자일치				1,504,178	1,908
4	4개 숫자일치				50,000	90,896
5	3개 숫자일치				5,000	1,530,979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